

# 도자의 미술사적 의의 평가한 역저

## 《한국 도자사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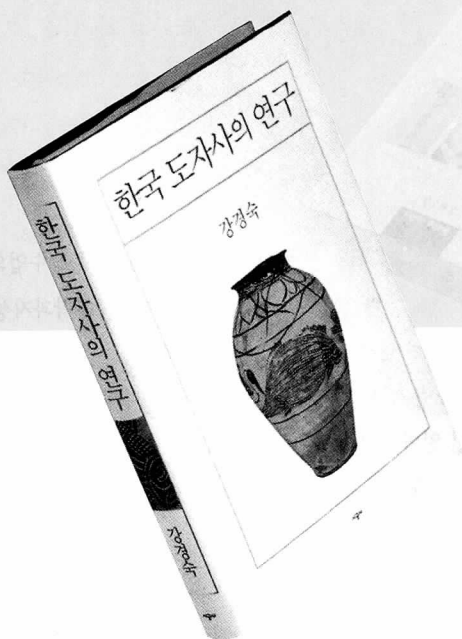
방병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국 도자사 연구를 논할 때 강경숙 교수에게는 '처음'이란 수식어가 곧잘 붙는다. <분청사기 연구>로 도자사 연구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처음으로 한국 도자사 개설서인 《한국도자사》(일지사)를 펴냈기 때문이다. 이런 강교수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 17편을 새롭게 다듬고 엮은 것이 《한국 도자사의 연구》다.

###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 도자 발달사 분석

총 5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논문 발표시기와는 무관하게 시대별로 나뉜다. 먼저 총론의 <한국 도자사 연구 50년>은 도자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다. 또한 <도자 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은 "미술사 장르 중 가장 고고학적 지식을 요하는" 도자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가마터 발굴에 대해 서술했는데, 박물관의 명품 실건본 아니라 발굴 현장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2장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은 중국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3장은 고려시대를 다뤘는데, 청자 발생설을 소개하면서 여러 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청자 편년의 시작과 종말의 기준을 왕조 흥망에 두었던 구획을 재고할 필요"에 따라 '여명기-발전기-변화기'라는 새로운 편년시안을 제시했다. 미술사에서 시기구분의 목적은 좀더 명확한 양식 변화의 근원을 찾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이런 시도는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고려청자 전반을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연결선상에서 폭넓게 볼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강경숙 지음  
시공사/B5/500면/35,000원

총 11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4장 <조선시대>는 저자의 평생 화두인 분청사기 관련 논문이 8편이나 된다. 저자는 분청사기를 '민족자기'로 규정하고 그 발전 양상은 세종 때의 민족문화창달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서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가마터를 조사한 끝에 "분청사기도 자기에 속했지 결코 도기로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저자의 커다란 업적이다. 또한 가마터에서 수습, 발굴된 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강진 지역 장인의 전국적인 확산 경로를 밝혀낸 것은 후학들에게 양식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편, 문헌분석을 통해서 분원(分院)성립 시기를 대략 1470년 전후로 추정하고 분청사기의 쇠퇴와 청화백자의 본격적인 제작을 연계해 파악했다.

백자 관련 논문으로는 3편이 있는데, 특히 백자 문양과 조선시대 화가들의 그림을 비교해 백자 제작 시기를 추정한 논문들은 도자사와 회화사의 영역을 상호 확장시켰다는 데 미술사적 의

의가 있다.

### 도자사 연구 영역 확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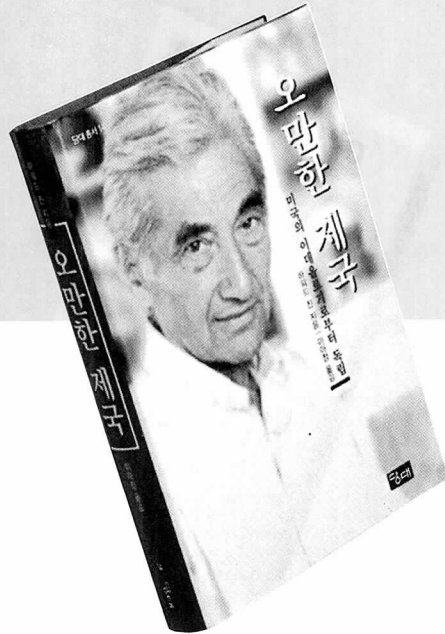
도자사 연구는 그 특성상 가마터 발굴 자료에 의한 고고학적 형식분류, 제작기술 파악과 편년 추정이 주인 것으로 자칫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도자사 역시 각종 사료와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미술사 전반의 자료를 섭렵하고 상호 영향 관계를 파악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곁들여질 때 좀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각기 시기와 주제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미술사로서의 도자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폭넓은 방법과 시각이 담겨 있다. 자칫 고고학의 영역에 머물 수도 있는 도자사 연구에 양식사적, 문헌사적, 사회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해 획기적인 잣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단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근·현대 도자사 연구는 후학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표지를 제외하고는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채색도판으로 접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미국을 고발한다”

《오만한 제국》

강정구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하워드 진 지음/이아정 옮김  
당대/A5신/524면/16,000원

미국의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인 하워드 진은 《오만한 제국》에서 미국 이데올로기라는 허울 속에 박힌 가상의 미국이 아니라 장막을 거둔 일그러진 미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별거벗은 임금님’ 미국을 파헤쳤을 뿐 아니라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지점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촉구하기까지 한다.

## 별거벗은 미국의 실체

2장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는 자유, 민주, 평화의 사도라는 탈을 쓰고 미국이 자행한 전쟁과 침략, 암살과 음모 등의 추악함을 고발했다. 3장 <폭력과 인간의 본성>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고 미국의 전쟁행위도 정당화된다는 저의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6장 <법과 정의>에서는 군주나 사람 등의 자의적 통치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국의 법통치 이데올로기에 결부된 사기행각을 보여주고, 법이라는 일반적 규정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서 해당사건의 모든 점을 고려하는 정의의 견지를 역설했다. 그의 정의는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자유와 번영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4장 <역사의 이용과 오용>에서 그는 미국의 역사교과서가 오용되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콜럼버스가 “자신을 순진하게도 친근하게 맞아들이는 인디언을 칼로 베고 노예로 만들고 살해했다”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학벌이 높은 윌슨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국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 해안을 폭격해 수백 명의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고발한다. 그는 개

탄한다. “미국 국민은 자신들을 그 교과서적인 상식 속으로 침몰시키고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게 만든 역사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8장 <언론자유>에서 미국의 헌법 수정조항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동시에 언론자유는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제공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을 가졌느냐의 문제) 또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보 전달과 취득 수단에 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봤다.

미국사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분석에서 짐작되듯이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를 거부했다. 중립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기존의 반중립적인 세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짓이라 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성을 가장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그의 눈에 비쳤다. 그래서 그는 “생존과 자유,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인종, 국적, 종교, 성별 구분 없이—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근본적 가치로 삼았고, 그 가치를 확고히 추

구한다는 의미에서 편견을 갖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정의를 위한 ‘편견’에 기초해 실천투쟁에 적극적인 그는 우리들에게 세가지를 촉구한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정의를 위한 투쟁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고,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해 동원된 역사상의 온갖 변명들—국가안보, 방위, 자유, 정의, 침략저지 등—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 없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단순한 비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투쟁해야 한다.

## 미국 이데올로기의 포로에서 벗어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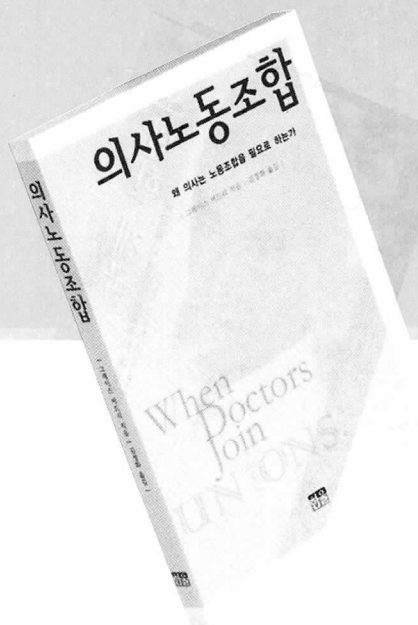
이제까지 친미주의에 빠져 있던 많은 한국인들도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 수단이라는 케네디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한 기계적인 법 형식주의, 원칙을 저버린 편의주의, 흑인계에 대한 선거·정치권의 여전한 억압, 그러면서도 자성은 케네디 자기 정당화의 궤변을 일삼는 오만주의 등으로 얼룩졌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노근리 학살, 미군범죄행위, 소파협정, 주한미군 철군논쟁 등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이제까지 그저 관성적으로 미국을 선진국, 맹방,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 평화의 화신, 정의의 대변자 등으로 여겨왔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줄 것 같다. 더욱 더 바라는 바는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인, 곧 맹목적인 친미와 승미를 일삼았던 한국의 사대주의 지배집단들이 이 책을 통해 미국 이데올로기의 포로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사의 뿌리에 대한 자존과 자긍을 되찾는 것이다. ●

# '더이상 특별하지 않은' 의사들을 위한 변명

《의사노동조합》

박재영 | 《청년의사》 주간



그레이스 버드리 지음/김정화 옮김  
한울/A5신/264면/12,000원

지난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의료대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 혹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 층의 반동적 몸부림' 쪽으로 생각했지만, 사태의 본질이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파업'이라는 단어와 좀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의사들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파업을 지속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루하게 계속되던 의료대란은 지금,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표류,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 국민 부담의 증가, 줄어들지 않는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의료대란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소득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의료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지만, 의료비의 증가라는 문제에 부딪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 불만에 가득찬 의사들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불만을 품을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의료는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가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룬 것처럼,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로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급격하게 향상됐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하나도 없었지만, 임상의학 수준만은 당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

했다. 의과대학이 연이어 신설됐고 해마다 배출되는 의사 수요도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의사들은 여전히 불친절하고 병원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들도 마찬가지다. 병원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나는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21세기를 목전에 뒀던 지난해,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의약분업의 실시가 직접적 요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적인 원인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못지 않게 의사들도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 미국 의사들의 노동조합 결성과정 다뤄

의사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 때문이든, 더 큰 권력에 의한 의도적 여론조작 때문이든, '더 가진 자'에 대한 본능적 질서 때문이든 간에, 의사들은 현재 이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의사 집단 전체를 사회적으로 '왕따' 시킴으로써 한국 의료의 모순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으나, 일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 이

제 조금은 냉정한 시선으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노동조합》의 출간은 반가운 일이다. 미국에서 1997년에 나온 이 책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미국 의사들이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결성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에 대한 기록이자 분석이다.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사들에게나 의료의 사회적 성격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의사들을 위한 변명'인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의사와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국민,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길고도 힘든 과정이 놓여 있다. 곳곳에 보이는 부정확하고 거친 번역이 눈에 거슬러기는 하지만, 이 책이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